

세계 속에 으뜸가는 척추전문병원 ‘월스기념병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월스기념병원은 현대 척추외과의 선구자이자 스승인 ‘월스(wiltse)’ 교수의 뜻을 기념하여 2002년 개원한 이래 15년간 척추·관절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개원 당시 71병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145병상, 연면적 7,300㎡ 지하 3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 월스기념병원은 2007년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 트레이닝센터로 지정, 200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선정한 국내 척추수술 TOP10 병원, 2011년 인증 의료기관 및 척추전문병원을 동시에 획득하였다. 또한, SCI급 논문 포함 250여 건에 달하는 논문 연구 업적을 기록하여 대학병원 못지않은 학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치료 환자 수, 수술 건수, 임상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비추어도 부족함이 없다. 수원 월스기념병원은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척추전문병원을 지정 받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으며,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여 ‘진료 전문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춘근 원장

척추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 안정성 입증

수원 월스기념병원 척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4년 전문병원 임상 질 모니터링 결과’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수술·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모두 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척추전문병원의 임상 질을 모니터링 한 결과로 추간판장애,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압박골절로 수술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수원 월스기념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합병증, 재수술, 재입원이 없다는 것은 최소침습수술로 합병증을 방지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연구로 치료의 안정성을 높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최우수 1등급을 획득하였다. 수술 시 감염이 심한 경우 전신으로 악화 돼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

으므로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예방적 항생제는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수술 관련 항생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곧 올바른 항생제 사용과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수원 지역에서 척추·관절병원 중 4개의 수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수원 월스기념병원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척추전문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기관 3관왕 획득

수원 월스기념병원은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모범 의료기관으로 인증의료기관, 척추전문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기관 3관왕을 모두 섭렵하였다. 인증의료기관이란 병원 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며 4년간 유효하다. 월스기념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전문병원에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2주기 연속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문병원 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뜻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월스기념병원을 포함 단 두 곳 만이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척추전문병원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해소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2013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

했다. 당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병원시설 개선과 인력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모범사례인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 월스기념병원은 전체 병상의 88%에 해당되는 127개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운영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 인력 충원, 시설 확충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 높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 의술 전수,
국제진료를 통해 국내 의술의 위상 높여**

수원 월스기념병원은 2007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 해외 의료진에 의술을 전수하고 해외환자를 진료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의료수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원 월스기념병원은 2009년부터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러시아어/몽골어가 가능한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20~30여명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몽골, 인도 등 해외의료진들이 고난도의 척추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수원 월스기념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수원 월스기념병원 박춘근 병원장은 전세계 척추·관절 환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으로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7여 년째 이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몽골에서 국제척추세미나를 진행 하고, 대한결핵협회 등과 함께 몽골척추결핵 퇴치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3명의 몽골 척추결핵 환자의 무료수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공로

를 인정받아 수원 월스기념병원 박춘근 병원장은 2017년 9월 몽골 보건부에 감사패를 수여 받은 바 있다.

**250여 건에 달하는 연구업적 및
최소침습술의 발전 선도**

수원 월스기념병원의 모든 의료진은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진료와 임상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SCI급 포함 250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대학 병원에 못지않은 학술 연구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내시경 디스크 수술 등 정상조직을 보존하는 최소침습수술법을 초기에 시행하고 국내에 보급해온 1세대 주자로서 최소침습수술을 발전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수원 월스기념병원의 핵심 가치는 세계 속에 으뜸가는 척추관절전문병원이 되는 것이다. 인간존중, 최고지향, 소통지향의 이념을 기준으로 전 세계 더 많은 지역의 주민이 최고 수준의 척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 월스기념병원 의료진은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보존적인 방법으로 척추 질환 관련 인류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윤희 기자/MP저널